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꾀박 속에서 살아가던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함을 가르쳐줍니다.

셋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보시고 “내 삶 속에는 감사할 것은 도저히 보이지 않고 불만, 불평 거리만 가득한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 지배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나에게 몇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몇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은 나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롬 8:28).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쉽게 일희일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범사의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소리 보다는 불평, 불만의 소리가 커져가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기쁨의 찬송, 기도,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가족 예배



Thanksgiving
Family
Worship

예배 순서

인도자: 가족 중

목 상 기 도 인 도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 50:23)

찬 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같 이
(찬384/통434)

기 도 가 족 중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후, 가족 중 한분이 마무리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다 같 이

말씀과 교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설 교 자
기 도 설 교 자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 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 이
(찬559/통305)

※가족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정성껏 헌금하였다가 주일에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폐 회 친교의 시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살전 5:16-18)

2020년 한해를 돌아보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정, 직장, 사업, 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감사할 내용 보다는 탄식과 절규의 소리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0년 Thanksgiving은 많은 분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감사 거리가 하나 둘 씩 사라져 가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더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시기하여 핍박하였고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에서의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마치고 베레아로 피신했어야 했습니다 (행 17:1-10).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13-18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한 소망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주께서 다시 돌아올 때에 믿는 자들인 우리가 썩지 않는 육신을 입어 살아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어려움, 더 나아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의 메시지는 문자적인 뜻 그대로 1분 1초도 멈추지 말고 기도의 소리를 내뿜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사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